

▣ 출근길 - 빠르게 원하는 제품을 찾고 싶지만, 쉽지 않다

아침 8시 10분.

유진은 출근길 지하철에 앉아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며 트렌드를 체크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패션 인플루언서가 착용한 슬림한 골드 이어링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아몬즈에 있을까?”

그녀는 서둘러 아몬즈 앱을 열었다.
검색창에 ‘골드 이어링’이라고 입력하자 수백 개의 제품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필터를 걸어보려 했지만, 스타일별 추천이 없어서 원하는 느낌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럼 브랜드별로 볼까?”

생각난 김에 브랜드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브랜드 비교 기능이 없어 하나씩 검색해서 들어가야 했다.
또한 브랜드 탭으로 들어가니 브랜드는 많은데
페이지가 나눠져 있지 않아 끝도 없이 스크롤을 해야 했다.

시간이 부족한 출근길,

결국 몇 개의 제품을 급하게 위시리스트에 추가한 뒤, 앱을 닫았다.

🌙 퇴근 후 - 구매 후 스타일링 리뷰를 보고 싶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

퇴근 후, 유진은 지난주에 주문한 실버 링 귀걸이를 택배로 받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열어 착용해봤지만,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자신의 스타일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이거 리뷰에서 사이즈 확인할 걸 그랬나?”

아몬즈 앱을 열고 해당 제품의 리뷰를 확인했지만,
스타일별 필터가 없어 비슷한 스타일의 리뷰만 따로 볼 수 없었다.
대신 모든 리뷰를 하나씩 스크롤하며 찾아봐야 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내 얼굴형에 맞는 주얼리를 추천해 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결국 유진은 후기를 남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과정이 복잡했고,
적립금 혜택이 크지 않아 리뷰 작성이 귀찮아졌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야겠다.”

그녀는 앱을 닫고, 다시 인스타그램을 열어 비슷한 스타일을 참고하기 시작했다.